

## 수도권 덮친 오미크론 공포 ... 광주·전남 전파 '초읽기'

전남도, 해외 입국 확진자 일부 오미크론 의심 긴급 검사 의뢰  
시·군에 긴급 생활시설 마련  
광주시, 기존 격리 시설 외 별도의 공간 추가 확보하기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 넣고 있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결국 국내에도 상륙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지역 내 감염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방역지침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남도는 해외 입국 확진자 중 일부를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보고 긴급 검사를 의뢰했다. **〈관련기사 2·6면〉**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방역 대응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기존 생활·격리 치료시설 외 별도의 공간 등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전남도는 각 시·군에 긴급 임시 생활시설 마련 지침을 내렸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1일 입국해 양성 판정을 받은 네덜·독일 입국자들을 즉시 격리 시설로 옮겨 앞으로 열흘간 관리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입국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이지만 입국 직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시설로 이송됐다. 방역당국은 이 기간 진단검사를 4차례 실시하고 도중에 음성으로 결과가 바뀌더라도 격리 기간을 채운 이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이들 확진자의 검체를 질병 관리청으로 보내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3~4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접종 완료자이고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시군에 마련된 격리시설에 열흘 동안 격리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접종 완료자가 입국 직후 검사에서 음성이나 오면 격리하지 않고 수동 감시자로 일상생활을 하며 1주일 후 진단검사만 받으면 됐다.

사도 방역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이미 곳곳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선 이날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현재 합창 모임 집단 감염, 학생 확진 등으로 33명이 신규 확진됐다. 동구 합창 모임과 관련해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어났다.

광산구 종교시설(1명), 광산구 제조업체(1명), 서구 중학교(1명), 서구 유치원(1명) 등 집단 감염 여파도 이어졌다. 나머지 확진자는 광주와 타시도 기존 확진자 관련 15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4명이다. 전남에서도 이날 오후 2시 현재 총 26명(해외유입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0명대를 넘어선 2일, 광주 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민주당, 광역단체장 평가 돌입 지방선거 공천 작업 시작됐다

하위 20%에 '감점 패널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공천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중앙당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국 광역단체장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 단체장에 대한 '감점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10명의 외부 평가단 앞에서 10여분간 지자체 운영 성과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한 뒤 20여 분 간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두 단체장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재임 기간동안의 성과와 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평가, 리더십 평가, 위기관리 평가, 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 직무활동 내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기준은 ▲도덕성과 윤리 역량(17%) ▲리더십 역량(19%) ▲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20%) ▲직무활동(31%) ▲자치분권활동(13%)으로 면접은 각 항목의 정성 평가에 활용된

다. 이 시장은 이날 프리젠테이션과 면접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성공 정착, '아이 낳아 잘 기르기 광주'에 대한 정책 추진 과정 등과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국에너지공단대 추진 성과와 에너지 전환시대에 따른 전남의 역할,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체류형 관광' 사업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면접위원들은 김 지사에게 전남도의 숙박시설 문제 등을 지적했고, 인구감소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면접에 대해 "대체

적으로 만족할 만한 면접을 봤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평가는 이날 면접평가 이외에 여론조사 평가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모든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한다.

현재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이 가운데 3선 연임을 한 최문순 강원지사 등 2명을 제외하면 9명 가운데 패널티는 하위 20%, 1명이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돼 패널티를 받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10차 회의 ▶8면

복스 -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들에게" ▶14·15면

페퍼스 김형실 감독의 승부수 '자율 플레이'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이재명 매타버스  
전북서 2박 3일  
정세균 전총리 합류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매타버스(메타타는버스)가 이번 주에는 전북으로 출발한다. 지난주 광주·전남에 이어 일주일만에 첫발인 호남을 다시 찾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매타버스 실무추진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의 매타버스가 역대 대통령 선거운동 사상 처음으로 전북을 독립적인 일정으로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방문한다"고 말했다.

이번 매타버스 일정은 '전북의 미래'를 컨셉으로 진행된다. 이 후보가 매타버스를 타고 전북을 누비는 동안 대선 경선에서 중도하차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북은 정 전 총리의 정치적 근거지이기도 하다. 천 의원은 정 전 총리의 합류 가능성을 묻자, "그러한 방향으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Trade-in 프로그램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초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둔대로 603번길 20(소초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